



16면

"국기태권도 발전 중추적 역할 할 것"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망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음 7월 13일) 제28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상생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2023년까지 대·중형 전기버스 총 2만5550대 생산
신규개발 성공 1톤급 전기트럭 Smart T1.0 '관심사'
이동 편리·화물 최대 835kg까지 적재 능력 보유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추진동력을 얻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난 6월 (주)에디슨모터스의 생산 출고에 이어 에디슨모터스(주)의 신규공장 준공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3면)

이날 준공 기념식은 에디슨모터스(주) 강영권 회장의 환영사와 주요 내·외빈의 축사, 준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 군산공장 생산 1호차 전달식, 차량 시승, 생산라인 견학,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인준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참여기업 대표, 양대 노총 지역위원장, 송영길 민주시민 대표, 문승욱 산업부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중앙부처 인사와 군산지역 도의원, 상생형 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전기차 생산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전국 최초로 함께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풀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다"고 1호차 출고에 이은 기쁜 소식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은 지난해 9월 착공, 총 302억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10만5,000㎡(3만평), 건축면적 2만8,000㎡(8,600평) 규모로 생산동 3동, 연구소 1동, 기숙사 1동을 신축,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빠른 올 7월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7월부터 한 달간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

에디슨모터스(주)는 군산공장에서 올해 대·중형 전기버스(Smart 8.7·9.3) 150여 대와 전기트럭(Smart T1.0) 2,000여 대를 생산하고, 2023년까지 총 2만5,5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 개발에 성공한 1톤급 전기트럭인 Smart T1.0은 현대·기아차 포터 EV와 봉고EV와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를 생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mart T 1.0은 전장 5,605mm, 전폭 1,950mm, 전고 2,680mm로 포터와 봉고 모델보다 크며, 편리한 이동과 최대 835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공간을 확보해 탁월한 화물 운영능력을 보유한 화물차량이다.

2도어 타입의 2인용 화물 전기차로, 고출력의 리튬 배터리 팩이 장착되고,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Smart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됐다.

최대출력 51.1kW의 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최대 123.2km 주행이 가능하며, 특히 그간 소형화물차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비 차로이탈 경고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전방 충돌 경고 장치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포터·봉고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한 3,700만 원 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약 1,2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모터와 배터리, 쓰리인원(3인) 컨트롤러 등 스마트 T1.0의 주요 구성 장치에 대해 8년/16만km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A/S를 제공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에디슨모터스(주)는 CNG·전기버스 전문 제조사로 내수의 31%를 점유하고, 자체 BMS(배터리관리 시스템) 등 특허등록 26건 등 자체 기술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총 302억 원을 투자, 257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주)는 올 8월 본격 생산을 위해 지난 6월 신규인력 83명을 채용했으며, 공채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우대해 63명을 지역주민으로 뽑아 지역상생의 의지를 보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생산량 증가에 따라 30여 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주)는 이번 신규공장 건설 이외에도 앞으로 70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차 도장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종합 완성차 공장으로서 거듭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강한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군산은 위기를 딛고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기술 개발지원과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개방형 R&D,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동반성장, 상생의 노사문화 등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이 군산은 물론, 전북도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입니다

SW융합클러스터 2단계 사업 진행 '순조'

전북도,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 구축 통해
데이터기반 서비스 추진 목표로 2024년까지 140억 투입

전북도가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SW)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SW융합클러스터 2.0(2단계) 사업이 순항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 SW융합클러스터 1.0을 통해 농생명 분야에 SW를 적용하며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 지원, 이를 통한 창업지원 등 농생명 SW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그간, 1단계 사업을 통한 성과(SW/ICT기업 210여개사 증가, 직접 창업 54개사, 신규고용 550여명)와 기반을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는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추진에 매진중이다.

2단계 사업에는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기반의 스마트팜 비즈니스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플랫폼 구축 ▲SW 융합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인력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농생명 분야에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 농업 SW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스마트팜 보급 정책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돼왔고, 보급률과 성공률을 높이고자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 전 분야에 SW융합이 활발해진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을 작년에 설계했고, 올해는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육 및 환경·경영데이터, 납품 및 이력 관리, 농기계 운행·사고발생 데이터 등을 수집 중으로, 향후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

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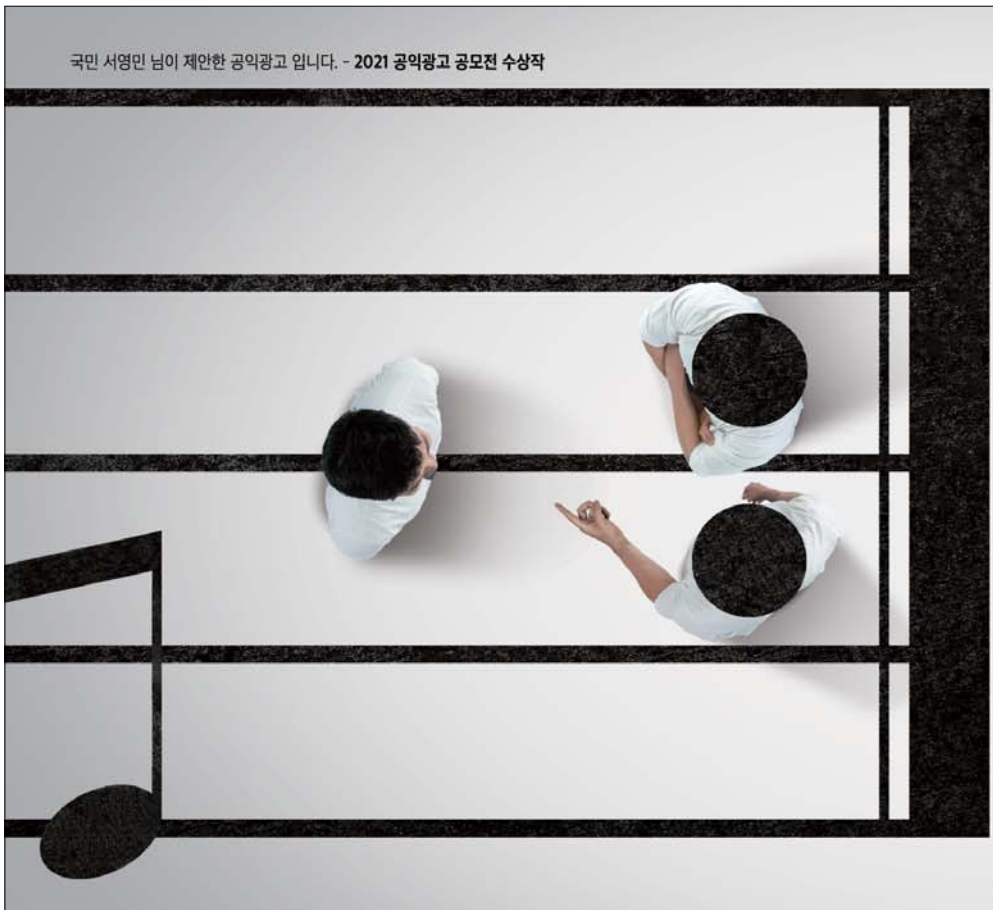
또한, 농생명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고자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도내 특화 품목·품종 등에 대한 스마트팜 농가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거래 공유 활성화로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11개사, 22억 원을 투입해 사업화 분야를 지원 중으로, 도내 농생명 IT/SW기업에게 지속적인 확대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이 잘하는 농생명 분야에 SW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민 서명만 남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폭력은 반복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도들이표처럼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